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배포일자	2022년 12월 12일(월) 총 2매	
담당부서 영유아정책과	담 당 자	• 영유아정책팀 권혜경 ☎440-2891 • 담 당 자 강범석 ☎440-2893	
사진(이미지)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노력 결실 맺어

- 인천시 ,『2022년 보육정책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 최우수상 수상 -
-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최우수상 수상 쾌거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2년 보육정책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인천과 부산이 유일하게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고, 그 중에서 인천이 최우수상을 수상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하게 됐다. 이에 더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서구가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지난 1년 간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거뒀다.

이 평가는 매해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지자체를 포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수 사례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평가다.

주요 평가 항목은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 보육 관련 예산 집행 관리, 어린이집 안전 관리, 공보육 확충 실적 등으로 보육 전반이더. 특히 시는 평가 비중이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실적 및 코로나19 대응 정책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시는 부모 만족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2020년 21개소, 2021년 29개소, 2022년 48개소로 확대·확충했다. 이 같은 결과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공동주택 시설개선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9개소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성공적으로 전환시켰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상승을 이끌어내는 등 공보육의 저변을 넓혀왔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에 소독기를 비롯한 방역물품을 제공하고, 어린이들의 정상적인 언어 능력 발달을 돕기 위해 보육 교사들에게 투명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보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중요한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청정무상급식 지원제도를 정착시켜 어린이집 사업 참여율을 97.8%까지 끌어올렸다.

이 외에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2021년 98개소에서 2022년 106개소로 8개소 증가시켜 취약보육시설을 확충했으며,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보육분야 전반에 걸쳐 토대를 다져왔다.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이번 수상과 관련해 "출산율 저하 및 영유아 수 감소 등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도, 인천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보육교직원과 시, 군·구 직원들의 노력이 멈추지 않았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우수한 분야는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한 점은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